

동의 CAMPUS

산학협력상 '식당메달' 시상
가릿길 마을 전국최초 '빅 이벤트' 진행
김름이 부산여성가족개발원장 인터뷰
동의대 재베트남동문회 인터뷰
동의의료원 의학칼럼(17) : 사상체질별 건강관리법- 전수형 교수

동의 PEOPLE

건축설비공학과 박종일 교수 대한설비공학회장 당선
경찰행정학과 최종술 교수 부산진구 인권보장위원장 선임
식품영양학과 최성희 교수 국제학술대회 학술상 수상
문예창작학과 전동균 교수 백석문학상 수상
문화정보학과 도태현 교수 한국도서관·정보학회 학술상 수상
회계학과 김석웅 교수 국제회계학회 저술상 수상
외식산업경영학과 김광지 교수 우수논문지원사업 선정
패션디자인학과 정현주 교수 저서 연꽃 문양 단정 출간
홍성우 선수 발전기금 기탁
이천석 총무과장 인사 및 교육관리자협의회장 선출
대학원 심규환 씨 '시와 사상' 신인상 수상
디지털콘텐츠공학과팀 삼성화재 UCC공모전 우수상 수상
금융보험학과연합회 학술세미나 3년 연속 최우수상 수상
대학원 임종우·김봉곤 씨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 수상
영화학과 김지원 씨 KUFF 대상 수상

동의 DREAM

장학생 토크콘서트⑤ 시험 피드백과 시험 플래닝 작성
취업 성공기 - 관세사 최종합격(무역학과 03학번 한용욱)

동의 NEWS

동의대 NIPA와 SWV 교육 과정 활용 MOU 체결
동의대 지역선도대학 육성사업 참여
동의대 인도네시아 교원 3차 연수 수료식 진행
동의대 동문교수회 장학금 전달
동의대 직원동문회 장학금 전달
동의대 국제라이온스협회와 교류협력협약 체결
동의대 상경대학 제4회 차용박람회 개최
동의대 제29회 아톰사랑 헌혈일레이 개최
동의대 금연서포터즈 발대식 개최
전국체전 펜싱 남자사브르 단체전 금메달
동의대 축구부 U리그 10연역 3년연속 우승

동의 LOVE

대학발전기금 모금 안내
후원의 집 소개(30) - 군불로
후원의 집 모집안내 및 명단
동의가족을 위한 복지 혜택 소개

dong-eui & you

동의대학교 웹진 제32호(2014년 11월 19일)



산학협력상 '석당메달' 제정과 시상

1억원 이상 대학재정 수입에 기여한 이원재·오원태·박영도 교수 시상



▲ 석당 메달 앞, 뒤

동의대는 11월 11일(화) 10시, 본관 회의실에서 산학연구를 통해 연간 1억원 이상 대학재정 수입에 기여한 교수 3명을 발굴해서 산학협력상인 '석당메달'을 시상했다. 올해 처음 제정된 석당메달의 수상자는 공과대학 융합부품공학과와 이원재 교수와 오원태 교수, 신소재공학과 박영도 교수다.

석당이란 명칭은 평소 국가발전엔 기술의 중요성을 매우 강조하셨던 동의대학교 설립자 고 김익식 박사의 호이다. 동의대는 그 뜻을 기리고자 순금메달에 석당의 얼굴을 새겨 넣었다.

공순진 총장은 "동의대학교는 대학발전의 축을 교육과 산학협력에 두고 여러 정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산학협력 우수연구자를 더욱 우대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가겠습니다"고 산학협력의 의지를 전했다.

김선호 산학협력단장은 "산학연구를 통해 연간 1억원을 대학재정 수입에 기여한다는 것은 웬만한 대학교수 연봉을 넘어서는 금액입니다. 올해 처음으로 제정한 산학협력상을 매년 동의대학교 개교기념일(10월 22일) 전후에 시상할 계획입니다"고 밝혔다.

이원재 교수는 "산학협력의 중요성과 의미를 담은 제1회 석당메달 수상자로 선정되어 매우 기쁩니다. 더욱 연구에 매진해 달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며 열심히겠습니다"고 수상소감을 전하며, "10년 이상 한 분야 연구에 매달린 것이 좋은 성과를 얻고 있는 요인인 것 같습니다"고 밝혔다.

기차길 마을 전국최초 '빅 이벤트' 진행

전공과 재능 살린 자원봉사, 지역과 함께하는 빅 이벤트 진행
대학과 기업 마을로 가다, 동의대·우리마을·개금3동 주민협 등 참여



동의대 사회봉사센터와 사회복지법인 우리마을, 개금3동 마을주민협의회는 지난 11월 15일(토)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부산진구 개금3동 8, 9, 10동(일명 기차길 마을)에서 '지역과 함께하는 BIG EVENT'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동의대 학생 265명이 참여했다.

빅 이벤트에 참여한 학생들과 기업들은 집수리 및 단열, 낡은 벽화제거 및 마을 세단장 등의 봉사활동을 펼쳤다. 또 국수나눔 잔치, 노래자랑 및 춤 경연대회, 화장 및 미용, 재무설계 및 법률상담, 건강체크 및 간단한 치료, 장수사진 촬영, 건강체조 등 학생들과 기업들의 전공분야별 역량을 이용한 재능기부 봉사활동도 진행했다.

특히 이번 행사는 개금3동 마을주민협의회가 함께 참여하여 일방적인 기부에 의존하지 않고 주민들이 기획 단계부터 참여하고 직접 행사를 치르는 게 특징이다. 주민들의 욕구를 바탕으로 한 기부사업으로 단체나 기업 중심이 아닌 주민 중심의 기부문화 변화를 이끌어내고, 주민이 중심이 된 마을공동체 토대를 마련하는 게 이번 행사의 주목적이다.

이번 행사는 동의대학교와 개금3동 마을주민협의회, 시민이 운영하는 복지법인 '우리마을', 부산광역시 사회공헌정보센터, 부산기업사회복지넷, 부산광역시 마을만들기지원센터가 주최하고, 부산광역시와 개금3동, 기업복지넷 소속기업(20여곳), 이레이앤시(주)가 후원했다.

“직원들과 하나 되어 양성이 평등한 사회 실현과 건강한 가정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름이 부산여성가족개발원장은 지난 8월 14일 취임식을 갖고 3년 임기의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다. 김 원장은 부산여대 사회 복지학과와 동대대 행정학과를 졸업했으며, 갑만 새마을금고 이사장과 제6대 부산시위원을 지냈다. 2012년부터는 2년간 부산시 복지사업 협회 정책자문위원으로 활약했다.

부산 북구 금곡동에 위치한 부산여성가족개발원의 김름이 원장을 만났다.

부산여성가족개발원에 대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부산여성가족개발원은 지난 2002년에 재단법인 부산광역시여성센터로 개원하여 2008년에 부산여성가족개발원으로 출범했습니다. 성평등사회 실현과 건강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 여성, 가족, 보육, 저출산, 아동·청소년 분야에 대한 정책 개발과 여성인력개발, 성별영향분석 등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연구결과는 부산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여성가족정책포럼’과 ‘여성우리’ 발간 등을 통해 지식을 함께 공유하고 있습니다. 여성의 역량강화를 위해 여성리더 1040 프로젝트, 지역적합형 여성인력 양성 및 취업지원, 여성인력개발 관련기관 네트워크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대상으로 성평등정책 모니터링, 학교·기업·군부대에 성평등교육을 지원하고 있고 부산광역시 건강가정지원센터와 여성긴급전화 1366부선센터를 수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분야를 소개해주시고.

지금까지 부산여성가족개발원의 기반을 마련하는 데 주력했다면, 이제부터는 여성단체 및 지역주민과의 협력과 소통에 역점을 두고 부산여성가족개발원의 인지도와 위상을 높여나가겠습니다.

부산여성가족개발원은 다른 연구기관과 달리 연구 외에도 공무원과 시민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교육 지원, 여성인력개발을 위한 여성역량강화 지원, 여성단체 및 관련기관과의 네트워킹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선 정책연구를 토대로 부산시민과 지역주민이 우리 여성가족개발원을 맘껏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임기 내 주된 목표가 있으시다면?

부산시민이 언제든지 찾을 수 있고 누구나 오고 싶어 하는 여성가족개발원을 만드는 것이 제 임기 동안의 가장 큰 과제입니다. 부산 외곽에 위치한 지리적(북구 금곡동) 한계로 시민들이 쉽게 드나들 수 없다 보니 대다수가 개발원에 대해 잘 모르고 있다는 점이 아쉬워요. 도시철도 2호선 금곡역에서 무료 셔틀버스를 타면 쉽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홍보를 더욱 강화하고 시민들과의 피드백으로 공공서비스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여성가족개발원의 위상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여성가족개발원이 개발한 정책이 여성, 가족, 아동·청소년 등 정책대상이 만족해야 할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여성가족개발원을 이용하는 모든 분들도 만족할 것입니다. 그로 인해 정책대상과 이용자가 만족하고 긍정적인 평가와 피드백으로 부산시민의 만족도를 향상하기 위한 공공서비스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 그래서 시민의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정책개발과 여성가족개발원을 이끌어가는 것이 저의 궁극적 목적입니다.

양성이 평등한 사회를 위해 알아야 할 것이 있으시다면?

지난 5월에 여성정책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법제명이 변경되었습니다. 이것은 여성정책의 패러다임이 ‘여성발전’에서 여성과 남성이 함께 공존하고 협력해 나가는 사회를 만들자는 ‘실질적인 양성평등 실현’으로 전환하는 단계라고 봅니다.

지난 10월 스위스 민간 싱크탱크인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한 2014년판 ‘남녀격차 보고(국가별 남녀평등 순위)’에서 한국이 조사대상 142개 국가 중 117위로 최하위권으로 나타났습니다. 양성이 평등한 사회는 남성과 여성에 대한 존중보다는 사람이라는, 즉 서로와 서로간의 존중과 각 분야에 차별 없는 참여와 다양한 활동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양성평등사회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듯이 법제명 변경과 더불어서 부산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모든 여성과 남성이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기회와 참여 균등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등의대에서 만학도로 행정학을 배우면서 특별히 기억에 남는 게 있으시다면?

제가 늦각이 학생이었습니다. 부족한 점이 많은 학생이었음에도 교수님과 동기들 덕분에 무사히 학업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평소에 일상적이고 작은 것들, 소소한 부분이 저를 많이 감동시켰습니다. 바쁜 일정으로 강의시간에 늦기도 하고, 과제를 제출에 대한 설명을 못 듣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 때마다 동기들이 챙겨주어서 원활히 학업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공부를 하는 동안 가장 소중하게 생각된 점은 지식을 터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살아가면서 사람이 소중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고, 깨닫게 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지면으로나마 도움을 주

신 많은 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여성가족개발원에 오신다면 꼭 차라도 한 잔 접하고 싶습니다.

사회진출을 준비 중인 여대생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은?

먼저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져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당신말이 맞소”라는 개념을 항상 머릿속에 넣고 있으면 사람과의 소통, 상호관계로 인해 힘든 일이 없을 것입니다. 요즘 세대들은 형제수가 적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타협하고 양보하는 마음이 예전보다는 적은 것 같습니다. 누구에게 좋지 않은 말을 듣거나, 좋지 않는 눈길을 느끼거나, 한 대라도 맞

으면 꼭 되갚아 주어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용서하는 것이 이기는 것이고 양보하는 사람이 승자입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눈앞에서는 이득이 보이지 않지만 차츰 쌓이면 엄청난 파급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여대생 여러분들이 사회에 나가면 생각지도 못하는 많은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긍정적인 마인드로 항상 웃으면서 힘든 일에도 쿡쿡하게 이겨나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편협한 사고를 배제하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보고 싶어 하는 것만 보고, 듣고 싶어 하는 것만 듣습니다. 예전에 임금이 충신이 바른말을 했을 때 내치고 간신배의 달콤한 말에 넘어가 후회를 많이 한다는 말을 들어봤을 것입니다. 또한 옛 속담에 이런 말도 있지요 ‘쓰면 뽕고 달면 삼킨다’

“여성은 남성에 비해 스케일이 작다”, “생각하는 폭이 작다”는 말도 흔히들 합니다. 그렇다고 여대생이 편협한 사고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여성이 ‘우물안의 개구리’가 아니라고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저는 여대생 여러분들에게 좀 더 넓은 식견과 사고를 가지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외국에 나가서 여행을 하고, 직업을 가지는 것만이 성공했고 스케일이 큰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편협한 사고를 배제하고 보이지 않는 것을 발굴하여 나만의 장점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여대생 여러분이 발굴해야 할 요소들이 많습니다. 앞서 임금의 예를 들었는데 충신의 말과 간신배의 말을 적절하게 들

고 판단한다면 그 임금의 앞날은 달라졌겠지요? 편협한 사고를 배제하고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원장님이 생각하시는 행복한 삶이란?

“밥상머리 교육”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참 중요하합니다. 가족과 함께 식사하고 담소를 나누고, 소박하지만 함께 할 수 있다는 것, 나와 가족들이 건강하다는 것,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내 힘으로 살 수 있다 것, 오늘도 어김없이 출근해 일을 할 수 있다는 것. 우리는 자신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행복은 사소한 일상 속에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합니다. 행복은 어디에 기준을 맞추느냐에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건강, 가정의 화목, 많은 돈, 부부간의 사랑 등의 요소도 있지만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책에서 “현재의 자선에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은 언제나 불행할 수 밖에 없다.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은 결국 자기가 가진 모든 것들을 만족스럽게 받아들이는 의미와 같다. 자신의 일에 재미를 느끼는 사람은 오랜 시간을 일해도 피곤할 줄 모른다. 그럼 사람이야말로 성공을 보장 받는다”는 구절을 봤습니다. 그리고 슈바이처 박사는 “성공이 행복의 열쇠가 아니라 행복은 성공의 열쇠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행복한 삶”이라고 봅니다. 지금 당장, 그리고 항상 “나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외쳐 보세요. 그럼 정말 행복한 삶을 누리는 사람이 됩니다.



2014년 2월 26일 재베트남 동의대동문회 발대식 사진

좌로부터 고기식 동문(무역학과 85학번)·김효식 동문(산업디자인학과 03학번)·신인기 고문(영어영문학과 80학번)·박봉두 교수·이우영 회장(회계학과 82학번)·성인재 동문(법학과 85학번)·박승현 총무(경영학과 89학번)

“글로벌 인재의 전당, 동의대학교”의 슬로건에 걸맞게 베트남에서 활동 중인 동문들의 모임이 있다.

동의대학교 재베트남동문회 총무인 박승현 동문(경영학과 89학번)을 동의대학교 캠퍼스 32호에서 지면으로 만나보았다.

동의대학교 재베트남동문회 결성계기와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베트남동의대동문회 총무를 맡고 있는 동의대 경영학과 89학번 졸업생 박승현입니다. 먼저 동의대 재베트남동문회에 관심을 가져주신 동의대학교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현재 정기모임에 참석하거나 연락 되는 동문회원은 신인기 고문님(영어영문학과, 80학번), 이우영 회장님(회계학번, 82학번)을 필두로 10명 내외이며, 오랜 해외생활에 각각 개인적으로 알고 지냈으며, 간간이 동문회 결성에 대한 얘기가 오가던 즈음에 2014년 2월에 동의대 인력개발부 이창훈 부장님과 박봉두 교수님께서 베트남을 방문하게

되면서 그 계기로 동문회를 정식 발족 하였습니다. 현지에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80년대 학번이 대부분이며, 그 외에도 여러분이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베트남동문회 모임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동문회 모임은 2개월에 한 번씩 정기모임을 가지고 있으며, 결혼식과 개업 등 각 중 대소사가 있을 때에도 임시모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베트남동문회에서는 주로 어떤 활동을 하신가요?

2014년 2월에 발족된 관계로 아직 미흡한 부분이 많아 현재는 동문 상호간의 우호증진과 해외생활의 어려움과 업무상 정보교환을 통해 결속을 다지고 있으며, 향후 학교발전과 후배님들의 해외진출에 미력하나마 힘을 보태고자 합니다. 더불어 베트남 현지 지역의 불우아동 돕기 등 여러 가지 활동 영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에서 생활하면서 어려운 점은 없으신가요?

해외생활에서 느끼는 고향에 대한 향수가 가장 먼저 떠오르네요. 현지인들과의 언어소통 문제도 고충이라고 할 수 있겠고, 가장 큰 어려움은 한국과 베트남의 문화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크고 작은 오해가 스트레스를 가중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해외창업이나 취업을 준비 중인 후배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을 부탁드립니다.

베트남에서 창업이나 취업을 하고자 한다면, 최소한 영어는 알아야 하며 가능하다면 베트남어를 필수적으로 익혀야 합니다.

특히 창업을 원하시는 분들은 통역을 쓰면 된다 고 단순하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베트남은 정보가 한정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통역에만 의지하다가 창업초창기 수입료를 상당히 지불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베트남이 후진국이라 물가가 싸다고 생각하겠지만 호치민 시내의 건물과 주택임대료는 한국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또 음식 값과 기타 경비도 최소한의 품위유지를 위해서는 오히려 한국보다 많이 들어갑니다.

취업의 경우에는 처음부터 모든 짐을 가져오거나, 가족과 동반하는 것보다는 일단 혼자 정착한 후 현지상황을 점검하면서 차츰차츰 준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취업문이 한국보다는 젊은 시기에 폐기 있게 해외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며, 적극 추천하고 싶습니다.



최근 쌀쌀해진 날씨 탓에 손발이 차서 병원을 찾는 냉증 환자가 많다. 대부분 손발이 차면 자신이 소음인이라고 생각해서 생강이나 인삼을 달여 먹는 경우가 많은데, 소양인 중에도 찬 사람이 있고 태음인 중에도 추위를 타는 사람이 있으니 찬 증상 한가지로 체질 진단을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중년 이후 건강에 관심이 많아져서 이른 저런 건강식품을 먹는 사람이 많다. 주로 광고나 주위 지인의 소개로 홍삼, 흑마늘, 복분자, 안파초, 오가피 등의 재물을 많이 먹는데 역시 체질에 따라 몸에 해로운 경우가 있으니 체질에 맞게 선택하거나 먹는 중 음에 나타나는 반응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



동의대학교 한의학과 전수형 교수

체질별 건강 관리



< 태음인 >

우리나라 인구의 1/2정도가 **태음인**이다. 얼굴이 넓고 눈코입구가 큼직큼직하고 체형은 골격이 크고 살이 찌며 특히 배가 크다. 말수가 적고 잘 참고 견디고 일을 꾸준히 하며 변화를 싫어하고 주로 안에 있는 것을 좋아한다.

태음인은 간기능이 폐기능보다 강해서 기운이 내부로 잘 모이고 외부로 발산이 잘 안되는 생리적 특징이 있다. 음식을 즐기고 활동량이 적으면 몸에 습기, 열기, 노폐물이 축적되어 피가 탁해지기 쉽다. 평소 땀을 잘 흘리면 건강

하고 눈이 침침하고 아프거나 가슴 두근거림, 어지럼증, 불면, 갈증, 변비 등이 나타나면 치료가 필요하다. 몸에 열이 많을 때 침이 좋고 기침에는 도라지, 오미자, 맥문동이 도움이 된다. 배설이 잘되는 무, 버섯, 콩나물 등의 채소와 호두, 밤, 잣 등의 견과류가 이롭고 지방질이 많은 음식과 열량이 많은 튀김류는 해롭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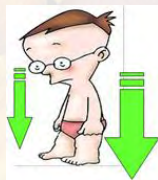
< 소양인 >

소양인은 인구의 30%정도이다. 눈이 예리하고 입술이 얇고 말이 빠르고 표현이 직설적이다. 가슴이 크고 두꺼운 반면 골반이 좁고 발목이 가늘고 걸음 걸이가 빠르다. 몸집하고 씩씩하며 야외활동을 좋아하고 싫증을 잘 내고 새로운 것을 좋아한다.

소양인은 음식을 받아들이는 비기능이 강하고 배설하는 콩팥의 기능이 약한 생리적 특징이 있다. 기의 상승이 강하고 성격이 급해서 화를 잘 내고 과로가 되어 체력이 떨어지면 밤에 식은땀을 흘리는 도한증이 나타날 수 있다. 평소 손발바닥에 땀이 조금 나고 대변이 잘 통하면 건강하고 두통, 설사, 가슴 답답함, 변비, 도한증의 증상이 나타나면 치료가 필요하다.

마늘, 양파, 고추 등 맵고 자극적인 음식과 술, 닭튀김과 같은 열성 음식은 해롭고 해산물, 채소와 같은

서늘한 음식이 이롭다. 안안이 잘 혈고 소변이 시원하지 않을 때 우유와 콩과 열매의 열을 내려주고 구기자, 복분자, 산수유는 콩팥기능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된다.



< 소음인 >

소음인은 인구의 20%정도이다. 눈코입구가 작고 부드러운 인상을 가졌고 어깨가 좁고 흉곽 벌어진 각도가 좁고 배가 작으며 하체가 통통하다. 앞으로 수그린 듯한 자세를 잘 취하고 생각이 깊고 조심성이 있다. 사람 사귀는데 시간이 걸리고 친한 사람만 가까이 하려는 성향이 있고 질투나 샘이 많은 편이다.

음식물을 받아들이는 비위기능이 약한 생리적특징이 있어 평소 식사량이 많지 않고 잘 채하고 물을 잘 먹지 않는 편이다. 소화기능이 약해서 복통설사가 잦고 기가 약해서 처지는 일이 많다. 평소 땀이 적으면 몸에 안 좋아서

식은땀이 나면 곧 기진맥진해지고 성격이 내성적이고 긴장을 잘하는 경우 수축다한증이 있을 수 있다. 설사를 자주하면 체력소모가 심해지므로 치료가 필요하다.

지나치게 남을 의식하거나 실수를 두려워해서는 안 되고 과식을 피하고 따뜻한 음식 위주로 식사를 하는 것이 좋다. 기운이 없는 경우 인삼, 황기, 백출 등이 좋고 골결질환, 유자차, 생강차는 기의 흐름을 도와주고 감기 예방에 좋다. 불안하거나 생각이 많이 잠이 안 올 때 대추차가 도움이 된다.



< 태양인 >

태양인은 수가 매우 드물다. 가슴 윗부분과 어깨가 넓고 목덜미가 굵고 머리가 크고 허리 아래 하체는 약하다. 눈빛이 강하고 고단성이 있고 카리스마가 있다. 상황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능력이 뛰어나다. 일을 급하게 추진하려는 마음이 있고 다른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제멋대로 행동하려는 경향이 있어 무례한 사람으로 보일 수 있다.

태음인과 반대로 폐기능이 간기능보다 강해서 기의 외부 발산이 과도해지기 쉽다. 스트레스 등으로 심리적으로 불안한 경우 침이 잘 삼켜지지 않거나 음식을 토하는 병증이 생기거나 하체가 힘이 빠져 잘 걷지 못하는 해

역병이 올 수 있다.

태양인이 술과 고기 그리고 열이 많은 음식을 항상 삼가야하고 지나친 자존심을 경계하고 한 발짝 물러서는 여유를 가지도록 노력해야한다. 맛이 담백하고 지방질이 적은 해산물과 채소류가 좋고 머루, 다래, 포도, 감, 모과 등의 과일이 좋다.

술있는 머리를 맑게 하고 모과, 오가피는 하체가 약할 때 주로 사용한다. 메밀은 위와 장을 튼튼하게 하고 노폐물을 내보내 혈액과 피부를 깨끗하게 하며 배변을 촉진하는 효능이 있다.

건축설비공학과 박종일교수 대한설비공학회 회장 당선



건축설비공학과 박종일 교수는 지난 10월 24일(금) 한국과학기술회관 12층 SC컨벤션센터 아나이스홀에서 개최된 대한설비공학회 대의원회에서 제25기 회장으로 당선됐다. 임기는 2015년 1월 1일부터 1년이다. 대한설비공학회는 1971년 건축설비와 산업설비의 기계, 에너지, 환경 및 자동제어 분야에 관한 학문 연구와 기술발전 및 기술자의 지위향상을 기함으로써 국민복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산·학·연 7,200여명의 회원으로 구성된 학술단체이다.

경찰행정학과 최종술 교수 부산진구 인권보장위원장 선임



경찰행정학과 최종술 교수가 지난 10월 14일(화) 11시, 부산진구청에서 진행된 부산진구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에서 위원장으로 선임됐다. 부산진구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약칭 부산진구 인권위원회)는 부산진구민의 인권향상과 증진을 위한 목적으로 구성되어 발족되었다. 최종술 위원장은 "앞으로 부산진구 인권기본계획의 수립 및 실행, 구민의 인권침해 상담, 인권침해 구제, 인권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고 전했다.

식품영양학과 최성희 교수 국제학술대회 학술상 수상



생활과학연구소 최성희 소장(식품영양학과 교수)은 지난 11월 4일(화)부터 5일(수)까지 제주도 국제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2014년도 한국차학회(韓國茶學會) 창립 20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에서 학술상을 수상했다. 최 교수는 "국내에 차(茶) 관련 단체가 많이 있지만 한국차학회는 학술진흥재단에 등재되어 있는 유일한 학회입니다. 차만을 단품으로 학회를 운영하는 일은 차 소비가 많은 일본에도 없는 사례입니다. 차의 과학적 연구와 인문사회학적 연구를 망라하고 있는 한국 차 학회에서 편집장과 학회 회장을 맡으며 어려움도 많았습니다. 해마다 주는 우수논문상이 아니라 몇 년 만에 돌아오는 학술상을 20주년 기념행사에서 받아 더 보람이 있고 기쁩니다"고 수상소감을 전했다.

문예창작학과 전동균 교수 백석문학상 수상



문예창작학과 전동균 교수(시인)가 제16회 백석문학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수상작은 시집 '우리처럼 낯선' (창비)이다. 시상식은 11월 19일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진행됐다.

전 교수는 "오랫동안 좋아해온 시인의 이름으로 상을 받게 되니, 공언히 먼 데 하늘을 보게 되는군요. 감나무나 소나무의 까칠까칠한 몸을, 어둡도록 푸른 잎을 만져보고도 싶고요. 백석은 저에게 '멋새 소리'의 시인입니다. 그의 절창 가운데서 유독 기 짧은 시가 낯다른 것은 조금은 어려웠던 한 시절을 이 시와 함께 건너왔기 때문입니다"고 수상소감을 전했다.

문헌정보학과 도태현 교수 한국도서관·정보학회 학술상 수상



문헌정보학과 도태현 교수는 11월 7일(금) 경북대학교 글로벌라자에서 개최된 한국도서관·정보학회 동계 국제학술대회에서 학술상(연구부문)을 수상하였다.

도 교수는 "보다 탁월한 연구 업적을 남긴 연구자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 분들을 대신하여 상을 받았습니다. 이후에도 학문분야 도서관을 위해

여 주어진 임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고 수상 소감을 전했다. 한국도서관·정보학회의 학술상은 매년 문헌정보학 분야에서 연구 업적이 탁월하고 학회 발전에 공헌한 연구자에게 시상한다.

회계학과 김석웅 교수 국제회계학회 저술상 수상



회계학과 김석웅 교수는 11월 8일(토) 경상대학교에서 개최된 한국국제회계학회의 추계학술대회에서 저술상을 수상하였다.

김 교수는 한국연구재단의 2010년 저술부문의 과제를 통해 "회계학의 비판적 방법론"(교육과학사)을 지난 4월에 출간하였으며, 이 저서가 저술상을 수상했다.

김 교수는 저서 "회계학의 비판적 방법론"을 통해 "회계학의 세계에서도 실증적 방법론 이외에 비판적 방법론도 이용되고 있으며, 이를 이용한 깊은 학문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며, 저자의 힘든 노력에 보람이 될 것입니다. 향후 비판적 방법론을 이용한 논문들이 우리나라 회계학회에서 발표되는 날을 기대해 봅니다"고 전하고 있다.

외식산업경영학과 김광지 교수 우수논문지원사업 선정



외식산업경영학과 김광지 교수는 최근 한국연구재단의 2014년 우수논문지원사업에 최종 선정됐다.

김 교수의 논문은 패스트푸드 판매촉진을 위한 전략을 게임이론과 연계하여 분석한 연구로 "패스트푸드 판매촉진전략을 게임이론(game theory)관점에서 접근하였다는 점에서 매우 독창적인 연구이며, 게임이론적 접근은 가격, 품질, 구매량 등 조건을 달리함으로써 다양한 후속연구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연구방법의 영역을 확대하였다는 큰 의의가 있다"고 평가 받았다.

한국연구재단의 우수논문지원사업에 선정된 과제는 연구 성과를 알기 쉽게 표현하여 우수논문지원성과 사례집 발간 및 대국민 전파를 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패션디자인학과 정현주 교수 저서 '연꽃 문양 단청' 출간



패션디자인학과 정현주 교수는 최근 저서 '연꽃 문양 단청'을 출간(출간일 : 10월 27일)했다. 폼8해림에서 출판된 이 책은 한국의 전통 단청 중에서 북한지역의 사찰 천정의 반자에 배풀어진 다양한 연꽃 단청(문양과 색채) 모음집이다. 남한지역의 사찰 천정 반자와 차별화된 북한지역의 연꽃 문양과 색채를 체계적으로 분류했다. 반자는 방이나 마루의 천장을 평평하게 만드는 사설이다.

이 책에서는 읽을거리를 통해 우리무늬연구소 임영주 소장이 '한국 전통건축에 나타나는 해·달·별과 꽃'을 주제로 한국 고건축에 나타나는 문양, 한국 불교 연꽃의 유래와 기원, 한국 고대 전통문화에 나타난 연꽃 등에 대해서 심도 있게 소개하고 있다.

홍성무 선수 발전기금 기탁



이 신생팀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내년 1군 무대에서 바로 활약 할 것으로 기대된다.

프로야구 kt wiz와 입단계약을 완료한 동덕여대 야구부 홍성무 선수(레저스포츠학과 4학년)가 10월 20일(월) 10시 30분, 동덕여대 본관 회의실에서 공순진 총장에게 대학발전기금 전오백만원을 기탁했다.

홍성무 선수는 프로야구 10구단 kt wiz에 2015시즌 우선지명(전체 1순위)되어 지난 9월 24일에 계약금 3억원, 연봉 2700만원에 입단계약을 완료했다. KT 위즈 야구단은

이천석 총무과장 인사 및 교육관리자협의회장 선출



동덕여대 이천석 총무과장은 지난 10월 15일(수) 제주그랜드호텔에서 열린 2014년 하반기 전국대학교 인사 및 교육관리(실무)자 협의회 총회 및 워크숍에서 임기 1년의 회장에 선출되었다.

'전국대학교 인사 및 교육관리(실무)자 협의회'는 2004년 1월 30일에 전국대학교 인사 및 교육을 담당하는 직원들이 주축이 되어 교직원 인사 및 HRD 담당자의 직무전문성 확보와 대학간 정보교류 활성화를 위해 설립되었으며, 2014년 하반기 워크숍에는 전국 45개 대학교의 담당자 56명이 참석하여 총회 및 학술교류를 진행했다.

대학원 심규환 씨 '시와 사상' 신인상 수상



대학원 석사과정 국어국문학과 심규환 씨(문예창작학과 06학번, 문예창작학과 학사조교)가 부산에서 발간되는 시 전문지인 '시와 사상' 2014년 겨울호 신인상 공모전에서 시부문 신인상을 수상했다.

시와사상은 시문학의 새로운 활력을 위하여 순수성과 개성을 지켜 나갈 역량 있는 작가를 모집하고, 한국 시문학사의 큰 기둥이 될 신인들을 발굴하기 위해 매년 여름호와 겨울호에 실험 신인작가 공모전을 주최하고 있다.

디지털콘텐츠공학과팀 삼성화재UCC공모전 우수상 수상



디지털콘텐츠공학과 3학년 이경건, 장권익, 김예을 학생으로 구성된 '스튜디오718'팀이 지난 10월 13일(월) 삼성화재 본사에서 진행된 '2014 삼성화재 다이렉트 UCC 공모전 시상식'에서 우수상과 상금 100만원을 수상했다.

삼성화재는 국내외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지난 8월 18일부터 9월 21일까지 'young한 사람, young한 생각 UCC(동영상·웹툰·포토툰) 공모전'을 진행했다. 이번 공모전은 갑작스럽게 걸려온 전화로 빚어진 해프닝 또는 위기의 순간, 'DIYrect'라는 워드잇 직접 해결해야 해!, 여행 중 황당경험의 3가지 주제로 공모했다.

금융보험학과연합회 학술세미나 3년 연속 최우수상 수상



금융보험학과 학생들로 구성된 보험증개사 순회사정사팀이 지난 9월 19일(금) 형성대학교 웨슬리관에서 열린 '2014년 제19회 전국 대학 보험관련학과 연합학술대회 정기학술세미나'에서 최우수상(1등)인 순해보험협회장상과 상금 50만원을 수상했다.

동의대 금융보험학과는 지난 2012년과 2013년 학술세미나에서도 최우수상을 수상했으며, 이번 수상으로 3년 연속 최우수상을 차지했다.

대학원 임종우 김봉곤 씨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 수상



동의대 대학원 호텔관광과식경영전공 박사과정의 임종우, 김봉곤 씨가 지난 11월 1일, (사)한국조리학회 2014년 정기 추계 학술대회 논문연구 포스트 공모전에서 최우수 포스트 논문연구로 선정되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상을 수상했다.

이번 공모전에는 모두 32편의 포스터 논문이 제출되었으며, 임씨와 이씨는 "특급호텔 조리 종사

영화학과 김지원씨, KUFF 대상 수상



영화학과 졸업생 김지원 씨(10학번)가 지난 10월 27일부터 31일까지 공주대학교에서 진행된 제9회 KUFF (Kongju National University Film Festival)에서 대상인 황금공상을 수상했다.

"열정온도 99도, 당신의 1도를 더해주세요"를 슬로건으로 진행한 이번 KUFF는 전국의 대학생과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극영화, 다큐멘터리, 실험영화, 애니메이션 등의 작품을 공모했다. 모두 150여편이 참여하였고, 23편이 본선 경쟁에 진출하였다. 김씨는 동의대 영화학과의 제6회 졸업작품인 단편영화 "귀로"를 출품했다.

김씨는 "추운 날 아무 말 없이 고생해 준 스태프들과 끝까지 저를 믿어준 가족에게 고마움을 전하고 싶습니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동의지천(東義知天) 토크 콘서트』 동의대 장학생의 배움과 실천 이야기③ 시험 피드백과 시험 플래닝 작성

교수학습개발센터 박은애 연구원

교수학습개발센터에서는 매 학기 신청학과에 한하여 장학생들의 공부법과 장학생이 되기 위한 고민, 실천 그리고 성과를 전하는 『동의지천(東義知天) 토크 콘서트』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호에는 그들의 실천 중 시험 피드백의 일종인 시험 일기를 작성하고, 다음 학습 계획을 세워 공부하는 습관으로 목표를 이룬 간호학과 4학년 김수현 학생의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시험 피드백이란 단순히 오답을 분석하고 오답 노트를 적는 것이 아니라 시험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세웠던 목표부터 그 과정에 대한 평가, 분석 그리고 다음 시험에 대비하는 새로운 전략수립까지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시험 피드백을 실천하다보면 결과와 상관없이 시험 준비 과정의 시간들

이 나를 성장시키는 과정이었다고 느끼게 되기 때문에 학생을 지속적으로 성장하게 만들어주고 공부의 선순환을 가져온다.

김수현 학생이 온라인에서 작성해왔던 시험 일기도 시험 피드백의 한 종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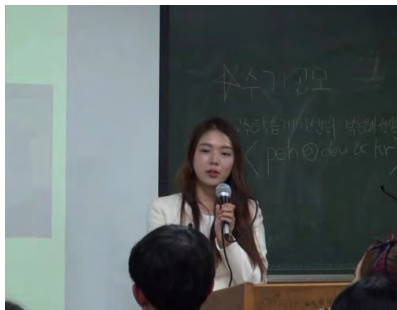
"시험 후에는 빠짐없이 일기를 썼습니다. 어떤 문제가 나왔고, 나는 어떤 계획을 세워서 어느 정도 양의 공부를 했었는지, 어느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부했는지, 시험 하루 전에는 어떤 내용을 어떻게 공부했는지, 시험 문제는 어디서 나왔는지, 그리고 나는 답을 어느 정도 적었는지, 무엇을 적고 무엇을 못 적었는지 그래서 다음 기말고사에는 이번에 못했으니 다음에 잘해야지 또

<간호학과 김수현 학생의 시험일기>

는 이번엔 잘 했으니 다음에 또 잘해야지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적는거죠"

"매 학기 같은 교수님을 만나는데도 시험 칠 때마다 교수님 성향이 기억이 안나요. 이번에는 무슨 문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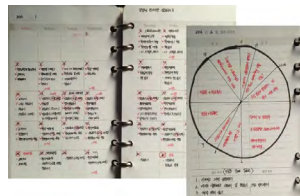
를 낼지 감이 안오죠. 저번에는 중요한 것만 내셨다하더라는 소문이 있지만 이번에도 중요한 것만 내실 가능성이 확실할 수가 없죠. 이럴 때는 시험 일기를 통해서 다음 시험에 대한 힌트를 얻습니다. 이 교수님 과목은 '2주전부터 공부했더니 3일 전에는 어느 정도의 공부가 된 상태더라', '시험에는 어느 정도 적었다' 등의 기록을 통해 시험 준비가 2주로는 부족할지 어떨지를 스스로 판단을 하게 되죠"



일반적으로 시험 피드백은 과목별 오답 분석, 과목별 공부법 분석, 시험 준비기간의 생활에 대한 분석 등의 내용이 포함 된다. 과목별 오답 분석에서는 틀린 문제를 분석하되, 개념 이해 부족인지 암기 부족인지, 실수나 문제를 잘못 읽은 것인지, 계산과정의 오류인지 등을 확인한다. 이후에는 분석한 노트를 가지고 주변 지인(동기, 선후배 등)과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는 혼자서 열심히 하기는 하지만 잘못된 방법으로 공부하여 성과를 거두지 못할 확률을 줄여준다. 과목별 공부법 분석은 수업 시간 외에 순수하게 스스로 공부하기 위해 책상에 앉아서 집중한 시간을 계산하고 공부 방법에 대한 효과를 점검한다. 시험 준비기간의 생활에 대한 분석은 시험기간 중 짜증나는 일이 얼마나 있었는지, 언제 그랬는지, 그럴 땐 어떻게 극복 했는지, 시험 공부하는데 유혹거리는 무엇이 있었는지, 내가 어떤 유혹에 빠졌는지 등을 분석하여 다음 시험에서 같은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해준다.

중간시험 피드백을 바탕으로 우리는 기말 시험 계획을 세울 수 있다. 계획은 해야 할 일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게 해 주는 중요한 도구이다. 피드백 즉, 자신이 경험하고 느낀 사실을 근거로 세운 맞춤형 시험 계획은 실천가능성이 높다.

"하루 일과를 뽁뽁하게 채워놓으면 반이라도 합니다. 그런데 일과를 느슨하게 짜두면 해 놓은 것도 없고, 그렇다고 제대로 된 것도 아닌, 이도 저도 아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하루 일과를 뽁뽁하게 짜두고 반이라도 하라고 다짐하며 지냈습니다" (전자공학과 4학년 임세훈)



<전자공학과 임세훈 학생의 일과 계획>



시험 피드백 효과를 높일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할 때 시험 플래닝을 활용할 수 있다. 이것은 시험 3~4주, 2주, 1주, 하루 전의 단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주말에는 일주일 계획의 실천에 대해 성찰하고 다음 주 계획 수정에 반영하도록 한다.

시험 3주(또는 4주) 전에는 시험 계획을 수립하고 주요 전공과목의 내용을 이해하는 수준에서 공부한다. 시험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각 과목의 목표를 적고(예를 들면 '5등 안에 들겠다' 등) 그에 적합한 구체적 전략을 수립한다. 이때 공부 잘하는 선배나 교수님께 자문을 구하는 것도 효율적인 방법이다. 이 시기에는 주요 전공과목을 중심으로 공부하되 일기를 위한 공부가 아니라 핵심내용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한다.

시험 2주 전에는 주요 전공과목의 시험 예상 문제와 답을 최대한 많이 만드는 방법을 위주로 공부하고, 동시에 교양과목이나 암기과목 공부도 병행하도록 한다.

시험 1주 전에는 교양과목 예상문제를 만들어 암기하고, 전 과목을 총 정리한다. 이때는 자신이 이해한 내용을 교재를 보지 않고 작성할 수 있어야하며 이를 노트에 정리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시험 전날에는 자신이 만들어 본 예상문제를 다시 풀어보도록 한다.

시험 피드백을 통해 자신의 성장 과정을 지켜보고 자신을 격려하며 발전할 수 있는 전략적 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하는 과정은 모든 학생들에게 필요하다. 이는 학점을 위한 학습이 아니라 '나'를 위한 학습을 할 수 있게 한다. 이번 호에서 소개한 '시험 피드백과 시험 플래닝 작성'을 활용하여 지난 중간시험의 과정을 되돌아보고 4주 남짓 남은 기말 시험에서는 한 학기 동안 배운 것들을 모두 풀어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

* 교수학습개발센터(<http://ctl.deu.ac.kr>, 산학협력단 309호)에서는 재학생의 학습역량강화를 위해 다수의 학습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장학생 토크콘서트 발표자의 영상은 교수학습개발센터 홈페이지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하고 싶은 것을 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누구나 할 수 있다면 도전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꿈이 있다면 도전하세요”**

무역학과 한용욱 동문 (03학번)이 지난 10월 15일(수) 관세청이 발표한 2014년 제3회 관세사 국가자격시험에 최종 합격했다.

한 씨는 “관세사 자격시험을 5년 동안 준비하며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노력해서 합격한 것 같습니다”고 밝히면서, “오랜 시간 준비한 만큼 더욱 노력해 FTA 관련 컨설팅 분야와 원산지 결정 관련 분야에서 일하고 싶습니다”고 포부를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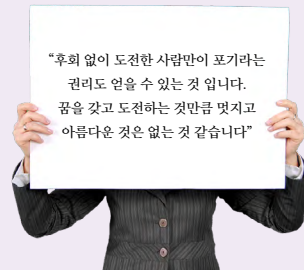
한용욱 동문을 취업성공기를 통해 만나보았다.

관세사에 대해 알려주세요.

관세사란 관세와 무역에 관한 전문가입니다. 국내 통관 물량에 대하여 화주를 대리하여 수출·수입 신고를 대신하여 주는 것은 물론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조건 등에 대하여 컨설팅 등을 담당하는 직업입니다. 근래에는 늘어나는 FTA와 관련하여 FTA전문가로서 해당요건 및 여러 가지 FTA에 따른 제반 사항 등에 대하여 컨설팅하고, 그와 관련된 업무를 진행하는 것도 관세사의 주요업무 중 하나이며 관세와 관련하여 행정심판 대리업무로서 쟁송업무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관세사 시험을 준비하게 된 동기와 어떤 과정을 거쳐 합격했는지 궁금합니다.

무역학과에서 무역을 전공하면서 무역관련 분야에서 어떠한 전문가가 될 수 있을까 하는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그러던 중 무역과 관련하여 최고의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관세사 시험을 알게 되었습니다. 일단 도전해 보자는 생각으로 시험을 준비하였고, 오랜 시험기간 끝에 원하는 직업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제 경우엔 시험준비 기간이 길다면 길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다보니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자신만의 공부 노하우가 있다면?

공부를 하면서 느꼈던 것은 자신감이 떨어지면 실력도 같이 떨어진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노후부다는 꾸준한 노력과 포기하지 않는 근성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제가 수험생활을 하면서 느꼈던 것은 시험의 경우 공부 방향을 잡는 것이 너무 중요하

는 것이었습니다. 시험은 불가위해서 공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출제 트렌드를 알고 출제 경향에 맞는 공부를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느꼈습니다. 선택과 집중도 필요했습니다. 모든 것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는 것을 편으로 녹아내려 하는 시험이기에 주 용도를 위주로 반복학습하고 능력을 최대한으로 이끌어 내기 위해 준비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전공수업이 취업하는데 있어 많은 도움이 되었나요?

제가 준비한 시험이 무역전문가로서의 자질이 필요하고 무역에 관련한 대리 전문가이어서 무역학 과를 다니면서 전공공부를 한 것이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물론 무역학과가 아닌 비 무역전공자들도 많이 도전하는 시험이지만 무역학과 전공자들이 유리한 것은 사실입니다. 시험과목 중에도 무역관련 법규나 규제 등에 관한 내용이 많이 있으며 무역학과에서 미리 접했던 것이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취업을 준비 중인 후배들에게 조언을 해준다면?

무엇이든 자기가 정해 놓은 길이 있다면 도전할 수 있을 때 도전하세요. 지나고 나면 계속 후회하게 되고 다른 일을 하더라도 미련을 버리지 못하게 됩니다. 후회 없이 도전한 사람만이 포기라는 권리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꿈을 갖고 도전하는 것만큼 멋지고 아름다운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도전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은 해낼 것입니다.

동의대, NIPA 부산 소프트웨어공학센터와 SWV 교육 과정 활용 MOU 체결



동의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부산 소프트웨어공학센터(이하 SW공학센터, 소장 이상은)는 지난 10월 16일(목) 오전 11시 30분에 대학 본관2층 회의실에서 'SW Visualization의 활용과 확산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

이번 MOU를 통해 양기관은 실무형 SW개발 인재양성을 위해 SW공학센터에서 주관하여 기업 지원 목적으로 개발한 'SW Visualization 관련 기술'을 국내 4년제 대학교 중 최초로 동의대 ICT 관련 학과의 교육과정에 적용하여 대학생의 SW개발 능력을 향상시킬 예정이다.

SW공학센터는 동의대의 의견을 적극 반영, SW Visualization 기술을 SW개발 교육과정에 적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대학에서 다양한 분야에 SW Visualization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동의대는 올해 전국 최초로 ICT 관련 6개 학과(전기공학과, 메카트로닉스공학과, 전자공학과, 정보통신공학과, 컴퓨터공학과, 컴퓨터소프트웨어공학과)를 주축으로 한 ICT공과대학을 출범시켜 ICT학과 학생들의 역량을 개발해오고 있다.

동의대 지역선도대학 육성사업 참여



교육부는 지난 10월 29일(수) 지방대학 특성과 사업(CK, University for Creative Korea)의 하나인 '지역선도대학 육성사업'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지방대학 간 연계협력을 통한 동반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2014년부터 100억 원 규모로 신규 추진하는 '지역선도대학 육성사업'은 권역별 10개 지역선도대학 컨소시엄(선도대학+협력대학)으로 구성됐다.

이 사업에 부산에서는 부산대(선도대학)와 동의대, 한국해양대, 신라대, 부경대가 컨소시엄을 구성한 '해양과학기술 글로벌 인재 양성 브릿지 사업'이 선정됐다.

지역선도대학 육성사업은 개별 대학을 지원하던 기존 재정지원사업의 틀을 벗어나 여러 지역대학이 인적·물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공유하고 외국인 학생 유치와 지역산업 맞춤형 인재 양성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동의대 인도네시아 교원 3차 연수 수료식 진행



동의대 교육연수원은 지난 10월 27일(월) 오후 6시부터 부산 서면 더스타뷔페에서 공순진 총장과 이경규 교육연수원장, 인도네시아 수라바야시 중등교원 29명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4년 인도네시아 수라바야시 교원 3차 연수 수료식'을 진행했다.

이번 연수는 9월 30일부터 10월 27일까지 한 달간 인도네시아 수라바야시 중등교원 29명을 대상으로 인성교육과 진로상담 사례, 수업 및 학교컨설팅 방법, 액션러닝 교수법, 플립러닝 교수법, 디지털 교과서와 스마트교육 운영사례,



교육과정과 교육정보화 사례, 수학과 과학교육을 통한 창의력 확대방안, 중등교육 시스템 견학과 문화체험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운영됐다.

동의대는 지난해부터 인도네시아 중등교원과 초등교과 교장 등을 대상으로 글로벌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해 오고 있다. 올해는 세 차례에 걸쳐 연수를 진행했다. 지난 7월 21일부터 8월 16일까지 중등교원 1차 연수를 진행하였으며, 8월 29일부터 9월 26일까지 수라바야시 초등교장 22명을 대상으로 2차 연수를 진행했다.

동의대 동문교수회 장학금 전달

동의대 동문교수회는 개교 37주년을 맞아 10월 23일(목) 오후 2시, 본관 회의실에서 공순진 총장과 동문 교수들이 참석한 가운데 동의대 재학생 14명에게 100만원씩 총 1,40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동의대 동문교수회는 지난 2004년 결성되어 현재 34명의 교수들이 후배들의 장학금 모금에 참여하고 있다. 2004년부터 적립한 기금은 2010년부터 매년 후배들에게 장학금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올해 14명을 포함하여 지금까지 54명의 후배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했다.

동문교수회 이순연(한의학과 교수) 회장은 "선배이면서 여러분을 직접 가르치는 사람에게서 선택받았다는 자긍심을 가지고 각자가 원하는 꿈을 꼭 이루길 바랍니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공순진 총장은 격려사를 통해 "동의대는 창의적 글로벌 인재 양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동의대에는 여러 종류의 장학금이 있지만, 선배 교수들이 모금을 통해 전달하는 장학금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우리 사회에 크게 기여하는 자랑스러운 동의가족이 되길 바랍니다"고 전했다.



별 인재 양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동의대에는 여러 종류의 장학금이 있지만, 선배 교수들이 모금을 통해 전달하는 장학금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우리 사회에 크게 기여하는 자랑스러운 동의가족이 되길 바랍니다"고 전했다.

동의대 직원동문회 장학금 전달



동의대 직원동문회는 개교 37주년을 맞아 10월 23일(목) 오후 4시, 본관 회의실에서 재학생 9명에게 100만원씩 총 90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동의대 모교 출신들의 후배 사랑으로 모임을 시작한 직원동문회는 지난 1996년부터 조금씩 기금을 모아, 지난 2002년에 대학발전기금 5천만원을 기탁하고, 나머지 기금으로 매년 후배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해오고 있다. 직원동문회는 현재 134명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다.



매년 5명에게 주어지던 장학금은 2009년부터 수혜인원을 늘려 단과대학별로 1명씩 총 11명의 재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하고 있으며, 올해까지 193명에게 일억구천사백이십이만원(194,220,000원)의 장학금을 지원했다. 직원동문회 김지연 회장은 "후배들도 모교에 대해 자부심을 가지고 사회에 진출해서도 뛰어난 활약을 펼칠 기대합니다"고 전했다.

동의대 국제라이온스협회와 교류협력협약 체결



동의대 국제라이온스협회 355-A지구(부산지구, 총재 강판수)는 지난 10월 27일(월) 오전 11시 30분, 동의대 본관 회의실에서 인적교류와 상호협력력을 통한 지역발전 및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류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국제라이온스협회 회원 교육



지원 및 대학 강의지원, 교육시설 사용 협조 및 행사지원, 재학생 장학지원과 졸업생 취업지원, 상호 학술교류 등에 협력을 나가기로 했다.

동의대 상경대학 제4회 채용박람회 개최



동의대 상경대학은 10월 28일(화)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국제관 호인갤러리와 화상회의실에서 제4회 상경대학 채용박람회를 개최했다.

이번 박람회는 동부CAS손해사정(주)와 온산해운항공(주), (주)삼한종합건설, 호텔이파크(주) 부산, (주)한진, 시엠알그룹코리아, 웰리크루트 주식회사 등 30여개 업체가 참여했다.

정종영 회장은 "상경대학에 맞게 특화된 채용박람회는 학



생들에게 취업에 대한 사전지식을 경험하게 하고, 개개인이 목표하는 기업에 취업하기 위한 맞춤형 취업설계에도 좋은 계기가 될 것입니다"고 개최 취지를 밝혔다.

동의대 상경대학은 재학생과 졸업생의 현장면접을 통한 취업률 증대와 채용정보 제공, 취업컨설팅을 통한 자기맞춤형 취업설계에 도움을 주기 위해 지난 2012년부터 채용박람회를 개최해 오고 있다.

동의대 제29회 이웃사랑 헌혈릴레이 개최



동의대 사회봉사센터는 제29회 동의대학교 이웃사랑 헌혈릴레이를 10월 27일부터 11월 7일까지 2주간 헌혈의 집 동의대센터에서 진행했다. 동의대의 헌혈릴레이는 부산지역 대학 내 최초의 헌혈의 집 개소를 기념하기 위해 1999년 2학기부터 매학기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 10월에 진행된 제29회 헌혈릴레이 행사 참여자 1,296여명을 포함해 지금까지 모두 37,332명이 이웃사랑 헌혈릴레이에 동참했다. 행사에 참여하는 재학생들에게 영화관람권을 제공하고, 추첨을 통해 문화상품권과 외식상품권, 캠버가세트 교환권 등의 경품과 최다헌혈 학과 및 동아리에도 상금을 제공했다.

동의대 금연서포터즈 발대식 개최



동의대 보건진료소는 지난 10월 7일(화) 오후 1시 30분, 동의대 자연·생활과학대학 세미나실에서 흡한국 학생복지처장과 금연 서포터즈 25명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금연서포터즈 발대식을 진행했다. 금연서포터즈는 흡연자의 금연유도 활동과 금연·흡연 구역 홍보 및 개도, 피켓홍보, 환경정화(담배꽂이 제거), 건물의 흡연구역 금연구역 공존구역 점검, 교내 환경 모니터링 등의 활동을 진행한다.

한편 보건진료소는 10월엔 매주 화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동의대 지전관 1층에서 부산진구보건소의 협조를 받아 학생 및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금연상담과 금연보조제 지급 등의 활동을 진행하는 금연 클리닉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전국체전 펜싱 남자사브르 단체전 금메달



동의대가 10월 28일부터 11월 3일까지 제주에서 진행된 제95회 전국체육대회에서 펜싱과 유도에서 금메달 1개와 동메달 2개를 획득했다. 동의대는 이번 대회에 축구부, 유도부(4체급 출전), 펜싱부, 배드민턴부, 태권도부(체급 출전)가 부산대표로 출전했다.

남자 펜싱 사브르 단체전에서 부산대표로 출전한 동의대 김수현, 김준호, 황선하, 정호진 선수는 10월 31일 진행된 결승전에서 전남대표인 실패팀을 45-33으로 물리치고 금



메달을 목에 걸었다. 동의대 선수들로 구성된 부산대표팀은 인천대표와 대전대표, 서울대표팀(서울메트로)을 차례로 꺾고 결승에 진출했다.

또 여자 펜싱 사브르 단체전 부산대표로 출전한 동의대 박정화, 윤지수, 김하은, 지연경 선수들은 동메달을 획득하였으며, 유도 -81kg급의 정해주 선수(체육학과 4학년)도 동메달을 목에 걸었다.

동의대 축구부 U리그 10권역 3년 연속 우승



동의대 축구부가 대한축구협회가 주관하는 '2014 카페네 네 U리그'에서 10권역(부산, 경남) 우승을 차지하며, 권역 3년 연속 우승의 쾌거를 올렸다.

동의대는 지난 10일 창원축구센터에서 열린 2014 카페네 네 U리그 10권역 리그 마지막 경기에서 동아대와 1-1로 비기면서, 최종 전적 11승 2무 1패로 승점 35점을 기록하며 10권역 우승과 챔피언십 진출을 확정했다.

10권역(부산, 경남)은 동의대와 동아대, 인제대, 부경대,

한국국제대, 창원문성대학, 동의과학기술대, 부산외국어대 등 8개 팀이 참가하여, 지난 4월 18일부터 10월 10일까지 리그전으로 경기를 진행했다.

한편 동의대는 '2012 카페네 네 U리그' 영남 1권역에서 14승 2무(승점 44)로 우승을 차지한 데 이어, 지난해 '2013 카페네 네 U리그' 영남 2권역에서 최종 전적 14승 2무(승점 44)를 기록하여 무패로 우승을 차지했다.

대학발전기금 모금 안내

동의대학교를 사랑하는 여러분의 관심과 손길이 지역중심대학, 세계를 향한 대학으로 발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작은 정성이라도 소중하게 여기겠습니다. 동문, 학부모, 기업체 인사, 독지가, 학교 관련 대내외 인사, 교직원, 특수대학원 및 평생교육원 졸업생, 동의대학교에 관심이 있는 모든 분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기금참여방법

일반기부: 개인 또는 단체 소득의 일부를 수시로 기부(자영업 및 전문직 종사자)

연례기부: 수입 또는 소득의 일부를 정기적으로 기부(직장인)

특별기부: 수입 또는 소득의 일부를 연간단위로 기부(기업인)

현물기부: 학생들의 수업 및 활동에 필요한 시설설비, 도서, 서화, 조각품, 실험실용 기자재, 컴퓨터 등

유산기부: 유산의 일부를 기증하거나 사후에 증여

권리기부: 토지, 건물, 소장품, 유가증권, 특허 등 유무형의 재화 기증

무통장 입금 (은행에서 무통장 입금하시고 입금내역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입금계좌(예금주: 동의대학교)

부산은행 264-13-000086-4

KB은행 109-01-0534-115

우리은행 042-388066-01-031

농협 949-01-169681

우체국 600759-01-006080

자동이체 납부

여자가 지정한 예금계좌에서 정기적으로 발전기금 계좌로 자동이체 하실 수 있습니다.

급여공제(교직원)

본인의 급여에서 일시불 또는 분할기탁으로 기부하실 수 있습니다.

기금납부방법

본교에 비치된 발전기금기탁(약정)서 작성 또는 동의대학교 홈페이지에서 출력한 약정서를 기업하셔서 우편, 전화, 팩스, 이메일 등을 통하여 보내주시면 담당자가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전화 051)890-1038 | Fax 0505-182-6818

E-mail: mjk@deu.ac.kr (담당자: 김미정)우편: (우)614-714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엄광로 176 동의대학교 대외협력처

“착한 가격, 친절함 서비스 그리고 맛! 한우전문점 군불로”

신선한 흑염소 소금구이와 저렴한 점심특선도 인기

지하철2호선 전포역 7번 출구 부근에 위치한 동의대학교 후원의 집인 '군불로'에 다녀왔습니다. 한우전문점인 군불로는 국내산 1등급 한우를 사용합니다. 양질의 한우 갈비살과 한우 꽃등심(100g 14,000원)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맞출 수 있어 인기가 많습니다.

군불로는 한우전문점으로 이름이 알려져 있지만, 최근 흑염소 소금구이와 양념구이(100g 16,000원)도 취급하고 있다. 부산에서 흑염소 소금구이를 접하기는 쉽지 않다. 소금구이는 물량을 많이 준비해 두지 않는다. 신선한 고기를 제공하기 위해 조금씩 준비하므로 흑염소 소금구이를 맛보려면 사전에 확인한 후 방문해야 한다.

유건욱 사장은 "인터넷 블로거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나면서 흑염소 소금구이를 찾는 손님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경북 경산농가와 경산도축장을 거친 10개월 이상 된 양질의 흑염소만 사용합니다. 점심특선으로는 매운뎃갈비가 인기 있습니다"고 전했다.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3시까지 점심특선으로 설렁탕, 곰탕, 육회비빔밥(6,000원), 매운뎃 정식(8,000원)을 저렴하게 맛볼 수 있다. 입소문이 나면서 12시 이전부터 인근 직장인들이 찾아오기 시작해 순식간에 넓은 실내에는 손님들로 만원이다. 배추겉절이는 달달하면서 아삭하고, 육회비빔밥은 고소하고 매콤하다. 설렁탕이나 곰탕, 소고기국밥 한 그릇은 추운 날 몸과 마음을 든든하게 해준다. 식사 후 아메리카노 커피 자판기에서 향긋한 커피로 입가심해도 좋다. 맛도 좋지만 친절해서 다시 찾고 싶은 집이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전포1동 690-1(전포역 7번 출구에서 서면방향)

☎ 051-805-4333



후원의 집을 모집합니다

동덕대학교는 발전을 위하여 매월 일정액의 기부금을 지정계좌에서 출원하는 모범업체 및 업소에 대하여 <동덕대학교 후원의 집>으로 선정하고 교직원, 학생, 동문과 가족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를 펼쳐드립니다.

연번	상호명	업종	위치	전화번호
1	(주)오리엔탈바리오텍	식품	동의대 생과대 110호	051)892-5372
2	연화초밥	일식	백양터널 영동자동차학원 밑	051)897-5014
3	정수북집	한식	개금 1 치안센터 맞은편	051)898-0223
4	유영근드레식단	한식	110번 종점과 백산 APT 사이	051)891-2346
5	교내서점	도서	동의대 상영관 1층	051)890-1881
6	금천식당	한식	가야3동 주민센터 옆	051)865-0245
7	월길초밥	일식	서면북계도로 SK스경주유소	051)806-2500
8	부산초밥	일식	롯데백화점 후문	051)819-1688
9	아바들감자탕(가야점)	한식	가야동 한신센터뷰(농협옆)	051)894-5522
10	그랜드타이어(주)	타이어도소매	감천지하철역부근	051)323-6511
11	포항들꽃집	한식	서면 사미현 맞은편	051)808-5949
12	고을정	한식	가야공원입구	051)894-3973
13	공원갈비	한식	가야번도보리빌 맞은편	051)891-9628
14	갈비42번가(숯불구이전문점)	한식	서면로얄밸리상 1층	051)806-8878
15	명성초밥	일식	서면 롯데백화점 후문	051)806-5152
16	주식회사 현대유평트니스센터	서비스	현대백화점 별관건물	051)939-6223
17	해촌횡집	한식	민락회센터 진로리치아파트방향	051)759-5054
18	영진돼지국밥	한식	가야공원입구 부근	051)852-3256
19	삼성화재 금정대리점	금융서비스	동의의료원 1층	051)852-3256
20	대서양식당	한식	서면 영광동서 앞 골목길	051)802-0909
21	소소횡집	한식	서면 영광동서 위쪽	051)804-9649
22	사조참치	한식	연제구 동림빌딩 1층	051)866-7665
23	복성반점	중식	부산광역시 사하구 하단동	051)291-7834
24	수영공원돼지국밥	한식	가야공원로 주차장 근방	051)893-8297
25	설화식당	한식	가야홈플러스 뒷편	051)893-3004

연번	상호명	업종	위치	전화번호
26	부여돼지국밥	한식	가야공원입구 주차장 맞은편	051)898-0554
27	항상춘은날	한식	인장마을	051)643-3514
28	김밥 15시	분식	개성중학교 근방	051)894-2945
29	함미각	중식	동의대 삼거리 근방	051)898-4700
30	콩나물비빔밥집	한식	수정시장 골목안	051)464-2386
31	독도칼아호텔	한식	가야 보광맨션 옆	051)819-9999
32	백양터널초밥	한식	백양터널아귀 삼거리	051)894-7635
33	하나부부치과의원	치과의원	주례역7번출구	051)312-8275
34	연세엘레수클리닉피부과	피부과	영광동서 옆 하나은행건물	051)714-0060
35	왔다집	한식	인장마을	051)633-5292
36	로타리꽃집	소매	양정상가	051)809-2687
37	(주)클립가이아	여행알선업	부산중부경찰서 부근	051)805-4333
38	강산치과	치과의원	가야보광맨션 앞	051)557-3328
39	원스탑종합자동차정비	자동차정비	동의대지하철역 2번출구 앞	051)892-1544
40	우와돌	한식	반도보리빌 정문	051)896-5450
41	(주)영광도서	도서	서면 롯데백화점 앞	051)816-9500
42	종가집	한식	서면 영광동서 맞은편	051)816-3677
43	종각내한우마을	한식	가야번도보리빌 사거리	051)892-3311
44	가야정	한식	가야컴퓨터상가 옆	051)892-3311
45	세로미	한식	백양터널 소방서 앞	051)896-4700
46	이슬산으로 분점	한식	재송동 하이마트 옆	051)784-9995
47	EF에듀케이션 퍼스트 코리아	유학	주미스타워 본관3층	051)803-3040
48	통근한우 참숯구이	한식	주례동 양자아파트아파트 1층	051)317-4042
49	화이트치과의원	치과의원	부산 해운대 임페리얼타워 4층	051)920-7700
50	굿모닝 할인마트	마트	부산 진구 동덕대학교 입구	051)891-1007
51	군불로	한식	전포역 7번 출구에서 서면방향	051)805-4333

동의 가족을 위한 복지 혜택

동의가족 진료비 감면 안내

문의전화 : 고객센터팀 (051)850-8534

대상 및 구분		양방	한방	비고
재단직원	본인, 가족 및 방계	진찰료 50% 해당비급여 20% 보철 10% 선택진료 20%	진찰료 50% 해당비급여 15% 선택진료 15%	1. 모든 감면금액은 50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2. 해당비급여 감면은 입원과 외래를 포함합니다. 3. 감면 해당자는 자격확인인 가능한 증빙자료를 진료당일 고객센터팀 접수창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어떠한 경우에도 소급적용은 불가능합니다.
동의학원 재학생 본인	동의대학교 동의공업고등학교 동의중학교 부속기관 교육과정	진찰료 50% 해당비급여 20% 보철 10% 선택진료 20%	진찰료 50% 해당비급여 15% 선택진료 15%	
동의학원 재학생 가족	재학생 가족 및 방계	진찰료 50% 해당비급여 10% 보철 10% 선택진료 10%	진찰료 50% 해당비급여 10% 선택진료 10%	* 가족: 직계, 배우자, 배우자 부모 * 방계: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 자매
동의학원 졸업생	졸업생 본인, 가족	상급 병실료 10% MRI 10%	상급 병실료 10% 공진단 10%	

*비급여란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 부분을 말합니다.

*동의학원 재학생과 가족 그리고 졸업생은 증빙자료(학생증, 재학생증서, 건강보험증 및 졸업증명서 등)를 진료개시 전(외래), 혹은 입원수속 시(입원) 고객센터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진료비 감면과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상담은 고객센터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종합건강검진 감면 안내

문의전화 : 건강검진센터 (051)850-8592

대상 및 구분	할인률	금액
재단직원	본인	40%
동의학원 재학생	가족(직계)	30%
졸업생	가족(방계)	20%
		220,000
		259,000
		296,000

*할인 전 금액: 370,000원(남,여 동일: 기본검진기준)

동의의료원 장례식장

문의전화 : 동의의료원 장례식장(051)866-3757, 850-8577

대상에 따른 감면율

본고 교직원 및 졸업생, 재학생	변경 전	변경 후
본인상	10%	40%
직계상	10%	20%

타 장례식장 사용료 비교(3일장 감면 전 기준)

동의의료원	A병원	B병원
74평 1,224,000	80평 1,500,000	85평 1,470,000
56평 888,000	60평 1,240,000	60평 990,000
31평 580,000	30평 850,000	30평 670,000

*대상범위: 본인의 직계, 형제 및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적용범위: 빈소사용료, 안치료, 장례음용

*단, 타업체 상조가입이 된 경우: 빈소사용료 및 안치료에서만 본인상 20%, 직계가족상 15% 감면을 제공

*자세한 사항은 동의의료원 장례식장으로 문의바랍니다.

하이트e치과(부산본점)

*문의 및 상담 : 이경하 대리 / T: 010-6711-0359 / E: leekyeongha1@nate.com

주소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1519 임페리얼타워 4층 (센텀시티역 11번출구)

제휴할인 내역

기간내 정상가에서 최대 30% '특별우대가' 혜택적용 (단, 비급여진료만 적용)

교직원 및 가족뿐만 아니라, 지인까지 특별비용 (사원증, 확인증 지참 필수)

*진료 할인 안내

·임플란트클리닉 Zimmer(200만원→160만원, 외국산/최고급형), 오스템(160만원→120만원,국산/고급형), NEO(130만원→99만원,국산/표준형), TIS(80만원 보금형/최저가)

·교정 클리닉 인비절라인(700만원), 클리피씨(450만원), 세라믹(350만원), 메탈(250만원), 2D부분교정(150만원)

*교정 진료시 발치 및 기타 진료금액이 발생될 수 있음

·치아미백(17만원→10만원 고품질 미백제 사용)

·풀백(자) 자기미백(25만원), 미백(화) 자기미백 3주+장치를+스켈링 포함가)

·잇몸성형(20만원→15만원, 브드잇몸성형)

·검사(예진) 무료(CT+파노라미+Study Model)

연세 엘레슈 클리닉 피부과

주소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전동 397-58 목원B/D 9층

할인 내역

가. 교직원 및 전직원 비급여 시술 25% 할인.

나. 재학생 및 졸업생 비급여 시술 15% 할인.

다. 동의대 학생들을 위한 매달 이벤트 행사.

- 동의대 세내기 행사/ 여드름 박멸 레노월 5회 100만원→79만원 코아쿠아필 서비스

블랙필 5회 45만원→29만원 코아쿠아필 서비스

사각턱 안면 친구와 동행 시술시 턱보톡스 30만원→20만원

제모 패키지 5회 티켓팅시 1회 추가.

모든 사항은 학생증 제시

비급여 시술안에 든살 및 흉터클리닉, 여드름, 기미 잡기 등 색소클리닉, 모공, 리프팅 및 탄력의 항노화클리닉, 제모 클리닉, 비만클리닉, 점 제거, 피부 및 미용 시술

* 홈페이지 : <http://smellechou.co.kr>

금호리조트

*이용대상: 재학생·졸업생·교직원 및 가족(예약시 소속을 '동의대학교'로 예약)
*연락처: 051-464-9770(부산영업소 잘철을 대리)

	구분	주중	주말	연휴
송무	배달리형(16명형)	79,000	113,000	173,000
	스위트형(27명형)	110,000	164,000	244,000
화순	배달리형(17명형)	61,000	71,000	121,000
	스위트형(27명형)	91,000	113,000	193,000
설악	스위트형(27명형)	61,000	76,000	153,000
	배달리형(18명형)	82,000	139,000	149,000
제주	스위트형(27명형)	131,000	205,000	225,000

*연휴기간: 5/1~5/6, 6/6~6/8, 9/6~9/9, 10/3~10/5, 10/9~10/12, 12/25~12/28

*성수기기간: 7/18~8/23(성수기기간은 별도 요금이 적용되며 회원추첨예약 이후 잔여객실이 있을시에 예약 가능)

동의대 교직원 할인 업체

센텀호텔

*이용대상: 동의대학교 교직원·가족(예약시 소속을 '동의대학교'이ಾಗಿ하고 예약)
*예약 전화번호: 051)720-9906(여대현 지배인)

객실타입	평수	정상가격	할인가격(주중)	주말(금,토,공휴일)
디럭스 룸	11명	380,000	100,000	130,000
이코젝티브 룸		450,000	135,000	165,000
스위트 I	19~22명	1,100,000	280,000	310,000
스위트 II	30명	1,300,000	330,000	360,000

*여름 극성수기(7월 15일~8월15일), PIF기간, 연말연시(12월 24일, 31일)에는 60,000원 추가

농심호텔

구분	객실 종류	정상 요금	할인 요금/실
교직원 및 외 부고객	디럭스룸 (더블, 트윈, 온돌, 온돌형 더블)	₩363,000	₩139,150

* 여름 성수기(₩169,400)

* 상가 요금은 봉사료 10%, 세금 10%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 객실예약(24시간 예약 접수): TEL. 051-550-2100~3/FAX. 051-550-2105



www.deu.ac.kr



교육기부기관
교육부

“동의대학교는 여러분의 열정과 도전을 힘차게 응원합니다”

취업에 강한 동의대학교 대졸 취업 동의대 전국 9위



동국의 미래, 세계를 무대로
동의대학교